

[기획] >> 3면  
총장과의 대화

[심층] >> 4면  
영어대장 탄핵

[심층] >> 6-7면  
글캠 총학생회 선거

[인물] >> 12면  
정우영 캐스터

## 총장과의 대화, 우리학교의 미래에 대해...



지난달 21일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총장과의 대화'가 열렸다. 행사엔 김인철 총장을 비롯한 각 부처 팀장과 차장들이 자리해 학생과 직접 마주했다. 이날 학교와 학생 사이에 어떤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지 알아보자.

▶3면에서 계속

글·사진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 2018-2학기 'HUFS SOS' 장학생 모집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에서 HUFS SOS 장학생을 모집한다. HUFS SOS 장학금은 장학사각지대에 놓인 긴급가계곤란 학생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8분위 이내 면학 장학금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다. 장학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학생 선발은 서류 심사 및 교내 장학사

정관 면접(긴급가계곤란 학생에 한함)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접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가능하며 학생회관 101호 학생지원팀에서 서류 직접 제출을 통해 진행된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우리학교 홈페이지 장학 공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 우리학교 경영대학 'AACSB 경영학교육 국제인증' 획득



▲AACSB 경영학교육 국제인증 마크

우리학교 경영대학이 최근 세계적인 경영 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 국제경영대학 발전협의회)로부터 경영학교육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AACSB는 경영학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인증기관으로 △연구△교육△예산△행정 등 총 15가지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 후 각 기준과 주요 필수 지표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이를 모두 충족시킨 대학에 한해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AACSB 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은 재학생과 동문 네트워크가 우수하며,

산업계와 대학·대학원 교육 전반에 공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인증은 기존 AACSB 인증 경영대학의 네트워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ACSB 경영학교육 국제인증은 전 세계 1만 6천여 개 이상의 경영대학 중 약 5% 만이 획득했다는 점에서 경영 교육의 최고 품질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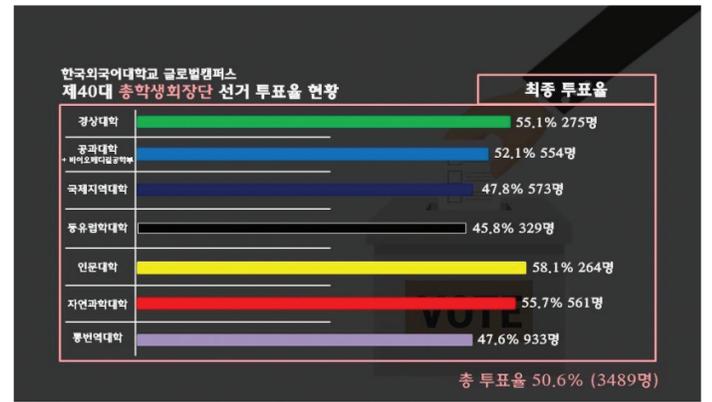
www.fila.com

# 글로벌캠퍼스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진행

글로벌캠퍼스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 까지 3일간 진행됐다. 선거는 각 단과대학 건물 △인문경상관△어문학관△공학관△자연과학관 1층 로비에서 이뤄졌다. 총학생회장단 후보에는 기호 1번 하모니(박종성 통번역·중국어 14 정후보, 강호균 공과·전자 15 부후보)와 기호 2번 리액션(한준혁 통번역·중국어 16 정후보, 최예림 공과·컴전 16 부후보)이 출마했으며 후보들은 선거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알 권리 및 투표 독려를 위해 선거 기간 동안 단과대별 투표율 현황을 공개했다.

한편,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50.6%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경성대학이 55.1%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동유럽대학이 45.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선거 개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부터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리액션 선거본부가 47.8%의 득표율을, 기호 1번 하모니 선거본부가 31.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호 2번 리액션 선거본부가 제40대 총학생회장단에 최종 당선됐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최종 투표율

## 서울캠퍼스 총학 선거 무산...다음 해 3월까지 푸름 임기 연장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됐다. 이에 제52대 총학생회장단인 푸름(안준현 서양어·독일어 16 정학생회장, 전병수 영어·영문 16 부학생회장)의 임기가 다음 해 3월 진행될 재선거 종료일까지로 연장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15일 오후 8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선거운동본부가 없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선거운동본부 또한 없어 후보자 추천 진행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칙 제5장(총학생회장단) 제84조(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의 임기) 2항에 따르면 11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를 3월 재선거 종료일까지로 연장한다. 더불어 총학생회칙 및 부총학생회칙 모두 12월 31일 이후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푸름은 총학생회장단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푸름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된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 첫눈과 함께한 논술고사

우리학교 2019학년도 대입 논술고사가 지난달 24일과 25일 진행됐다. 논술고사는 통합 교과형 논술로 진행됐으며 모집 단위별로 서울캠퍼스 각 지정장소에서 치러졌다. 논술고사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가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박지혜 입학처장의 입시 안내로 시작된 이 행사에는 △우리학교 홍보대사 새로미△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과 대학 학생회장이 참석해 △홍보대사 소개△학생 생활 안내△질의응답 등을 하며 학부모들과 시간을 가졌다.

한편, 논술고사 당일 시험을 치러 온 수험생들이 제대로 된 고사장 위치 안내를 못 받았다는 제보가 우리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이하 대숲)에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다수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길 안내를 받지 못해 길을 헤매며 재학생들에게 길을 물어봤다. 수험생들의 대기 시간 또한 문제가 됐다. 논술고사 당일 학교 측은 고사장 건물의 문을 반만 개방했다. 이에 수험생들의 입장은 지연됐고, 수험생들은 폭설 속 추위에 떨어야 했다. 더불어 입실 시간이 임박해 교수님들의 출입이 이뤄져 학생들의 입실은 더욱 늦춰졌다. 수험생들은 교수님들이 출입한 후 입실할 수 있었다.

우리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힌 대숲 제보자는 “누가 우선입니까? 입실 시간을 8분 남겨두고 그 많은 학생들을 기다리게 하고 줄줄이 나오시던 교수님들인지, 일주일 전에 능능이라는 큰일을 치르고도 논술을 위해 또 책상에 앉아 간절히 준비했을 아이들인지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며 학교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 2019-1학기 국가교육근로 장학금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2019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교육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국가교육근로 장학금은 방학 기간 또는 학기 중 교내 근로를 한 후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우리학교 소속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소속 대학 미정인 신입생 또는 편입생은 추후 2차 신청 기간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한편, 접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17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 글로벌캠퍼스 정수 시설 논란... 식음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달 글로벌캠퍼스의 교내 정수기 물에서 악취가 나거나 흙 맛이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며 많은 학생들을 공포를 떨게 한 바 있다. 교내 시설관리팀의 조사 결과, 이는 정수기의 문제가 아닌 상수원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관리팀은 “정수기 물에서 조류 및 녹조의 영향으로 냄새가 나거나 일부 흙맛이 느껴질 수 있으나 식음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한편,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임태성 자연과학·수학 13 위원장, 고경화 국제지역·아프리카 13 부위원장)는 정수기 관리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조속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일과는 별개로 현재 한 달에 한 번 청소가 이뤄지는 필터 청소를 더욱 주기적, 세부적으로 관리하도록 업체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 서울캠퍼스 식당 식대 인상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 학생식당과 교수회관 식당의 식대가 인상됐다. 행정지원처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학생식당의 누적 적자 보완으로 2016년 식대를 소폭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식자재 및 제품 원가의 상승과 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식당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가격은 다시 인상됐다. 학생식당의 김밥 가격은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으며, 교수회관의 식대는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행정지원처는 식대 인상과 관련해 “가격 인상으로 식당 이용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www.korean.ac.kr

# 2018학년도 겨울학기(제43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KFL)

국내 유일의 언어권별(영, 중, 일) 맞춤 이론 수업 진행  
실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실습 수업 실시  
40년 전통의 한국어교육의 산실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의 노하우 전수  
한국어교육 권위자 허용 원장(Marquis Who's Who 등재) 직접 강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 제공  
우수 수료자 대상 본 원 강사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2018학년도 겨울학기(제43기) 신입생 모집안내

**\* 교육일정**  
2019년 1월 2일(수) ~ 1월 31일(목) 월~금 / 9:20 ~ 17:30 (총 130시간 과정)

**\* 원서접수 및 지원자격**  
원서접수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 12월 17일(월) 오후 4시  
지원자격 : 고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단,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TOPIK 6급 소지자)

**접수방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상세 내용 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www.korean.ac.kr)

**전형료** : 20,000원  
**등록금** : 1,415,000원(교재비 포함)

**\* 문의처**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외국어연수평가원 101호)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화 : 02-2173-2260 / 이메일 : cklace@hufs.ac.kr

ORCID를 소환하시면, 인문대(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CENTER FOR KOREAN LANGUAGE & CULTURE, HANKY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총장과의 대화, 우리학교의 미래에 대해...

지난달 21일 오후 5시 30분 사이버관 대강당에선 '총장과의 대화'가 개최됐다. 행사는 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과 전병수(영어·영문 16)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학교 측에선 김인철 총장을 비롯한 조국현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최승필 기획조정처장(이하 기초처장) 등이 자리했다. 학생 측에선 안중현(서양어·독일어 16)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단과대

대표△중앙운영위원회△일반 학생들이 참석했다. 대화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문제△안전 문제△공간 문제△재정 문제△승강기 설치△장학금 기준 변경 문제 등 학교 측에 시설과 제도에 관한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알아보자.

## ◆개회사

**김인철 총장(이하 김 총장):** 최선을 다한 1년을 보냈지만 때로는 민망하기도, 고통스럽기도 했다. 총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직까지 장학금도 못 늘렸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강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학생들의 편에 서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총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를 운영하는 중에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점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총장과의 대화에 오르신 학생들에게 정말 고맙고 양 처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

**Q1. 교수협의회 총회가 열린다는 현수막이 걸렸었다. 이에 총회가 왜 열렸는지, 안건은 무엇이었는지 알려 달라.**

**김 총장:** 이번 총회는 임시 총회였다. 총장에겐 우리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참석을 요구했다. 여기서 나는 △재정적 어려움이 도래한 이유△총장으로서 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활동△추후 재정 예측 등과 같은 질문에 답했다.

나는 우리학교의 재정 문제를 건전하게 처리하고 나아가 이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잘 마련해 교수님들의 연구 인센티브는 물론 학생들의 장학금 그리고 교직원 급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승필 기초처장:** 우리가 재정적으로 두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다. 우선 양 캠퍼스의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하며 여러 곳에서 빌린 금액에 대한 만기가 이번 해와 다음 해까지 두 차례다. 또 하나는 우리학교가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만기일 역시 위와 같다. 이 두 만기일이 겹치며 우리학교를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다만 2020년엔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며 자연스레 나아질 것이다.

학교에선 건축재정계획을 세웠다. 다음 해부터 이 계획에 따라 재정을 운영할 것이다. 이는 건축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영역과 같은 곳에 예산을 늘리거나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과감히 삭제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계획이다.

종합적으로 이번 해와 다음 해까진 어려울 것이나 2020년엔 분명 더욱 나은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Q2. 얼마 전 우리학교 장애학생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기사가 온라인상에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승강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김 총장:** 내가 학생이었던 시절 몸이 불편한 친구를 업고 사회과학관 5층까지 올라가고 내려왔던 경험이 있다. 그로부터 42년이 흘렀지만 우리학교엔 아직도 본관과 도서관 외엔 승강기가 없다. 참 부끄럽다. 전임 총장들이 학교를 잘 운영하지 못해 일어난 상황이기도 하지만 내 책임이기도 하다.

학교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해 1~2월에 설계해서 3월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총 5개 건물에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반 학생이 아닌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승강기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설치하겠다. 내 임기 안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승강기 설치의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



▲'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학교 측과 학생대표자. 왼쪽부터 △전병수(영어·영문 16)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최승필 기초처장△김인철 총장△조국현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Q3. 교내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가 가끔씩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는가?**

**김 총장:** 서울캠퍼스(이하 서울캠)엔 흡연 부스가 없다. 글로벌캠퍼스에 흡연부스를 설치해봤으나 시간이 지나니 지저분해지고 기능적으로도 떨어졌다. 학교의 전체적인 풍경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캠엔 설치하지 않았다.

**총괄지원팀:** 흡연 부스 설치를 검토해 봤으나 서울캠 특성상 공간도 좁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힘들 것 같아 만들지 않았다. 흡연실 혹은 흡연 가능 장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5년 전쯤 총학생회와 얘기해 몇몇 장소를 지정해 흡연할 수 있도록 팻말을 세웠다. **학생지원팀:** 흡연자와 금연자 사이의 주장이 팽배하지만 학교에선 기존 흡연자들을 생각하되 금연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또 외대사랑순찰대를 운영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에 여러분들도 잘 협조해주길 바란다.

**Q4. 학생과 관련한 권력형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학생대표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학교 당국은 징계의 △진행 과정△결과△판단근거 중 어느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란다.**

**김 총장:** 교수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회에서 △교수 △시사전문가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학생이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내 편견일 수 있다. 이사회에 가서 학생과 관련한 사건일 경우 학생대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징계위원회의 절차는 원래 투명하지 않다. 징계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은 △성평등센터장△변호사△상담원△징계위원회△조사위원뿐이다. 그 사람들도 자신이 들은 사실관계나 의문 등을 주변에 발설할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총장인 나도 조사의 개괄적인 부분만 알 뿐 완벽한 조사 내용은 모른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리진 결정이다. 그래서 완벽한 공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5. 학내 성평등센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성교육 강사 초빙 비용을 학생들한테 부담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성평등**

**센터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가?**

**김 총장:** 우리학교 성평등센터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교직원△상담원이 각각 한 명씩 배정돼 있다. 또 10명의 변호사가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상담과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 성평등센터에 질문한 결과 사안이 민감하고 공개하기 어려워 오랜 시간을 두며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 두 달 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다른 대학에게도 문의해 본 결과 마찬가지로 들었다.

우리학교는 이와 관련한 문제로 교수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학교를 떠나신 분도 계신다. 또 징계를 받고 학교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총장으로서 약속한 대로 성평등센터 직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행정지원처에 검토하도록 하겠다. 성평등 사전 교육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Q6.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박철 전 총장의 헌법소원이 기각 및 각하됐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명예교수 철회 절차△총장의 의견△학생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답변 바란다.**

**김 총장:** 박철 전 총장은 노조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법원에 제소됐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하지만 판결 조항 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다고 주장해 헌법재판소에 소원했지만 얼마 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모든 법률 절차가 끝나고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인사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명예교수 임면은 해당 학과 교수들로부터 의견을 모은 후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박철 전 총장이 재직했던 스페인어과에 자료를 보낸 상황이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두 번째로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회 간부들을 징계한 것은 총장실을 점거한 것에 대한 징계이지 박철 전 총장의 사태와 관련한 징계가 아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학적부에 등재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또 해당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게 했다. 물론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 징계 학생의 유기정학 기간을 길게 잡아 학기를 포기해야 하긴 했다. 이는 총장으로서도 안타까웠다. 다만 이와 같은 징계는 총장실을 점거해 총장의 업무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이지 박철 전 총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다.

**Q7. 정문 맞은편에 짓고 있는 건물에도 내국인 학생을 수용할 것인가?**

**김 총장:** 요즘은 교내 기숙사도 쉽게 만들 수 없다. 주변에서 하숙하는 학생들이 교내로 들어올 경우 학교 바깥에 있는 상권이 죽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구청의 허가를 받기 힘들다. 정문 앞 신축 건물은 외국인 학생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다. 다만 오로지 외국인 학생만 유치하진 않을 것이다.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모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진다. 이 법원에서 건물 운영 계획을 세울 때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의 수용 비율이 정해질 것이다. 이에 총장으로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

**Q8. 학내 안전체계 확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산 편성 의지나 계획 있는가?**

**김 총장:** 이전에 모 학생이 쓰레기에 '폭발물'이라고 적어두는 바람에 교내에 국립 폭발물 처리반이 들어오고 뉴스 중계차들이 들어온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안전에 대해 민감하다.

**시설계획팀:** 24시간 자치 공간 개방 같은 경우 어찌어찌는 얘기 아니다. 다만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도 학교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불편하겠지만 학생들이 양해해주길 바란다.

**최승필 기초처장:** 안전예산에 관해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우리학교는 예산에 따라 인력과 시스템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안전에 대해 유의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안전 부문 관련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충분히 실현할 것이다. 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여러분들과도 의논하겠다.

**Q9. 가장 최근에 부끄러운 점 느끼셨던가? 그리고 이는 학교 운영계획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만약 없다면 학생들에게 학교 비전과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김 총장:** 최근 우리학교가 QS 대학 순위와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기대한 순위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끄러웠다. 내 학창시절 이 학교가 가졌던 품격과 위상을 되찾고 싶다. 그래서 우리학교가 종합대학 7위, 아시아 50위 안에 들기 바란다. 내가 퇴임할 때 종합대학 7위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소망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서로 합심해 우리학교를 발전시켜 나가자. 그게 내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학생들과 만날 생각이 있다. 숨기지 않겠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겠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치겠다. 총장이라도 불가능한 것들은 못하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처장단과 협의해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

# 제 33대 영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 가결

지난달 12일과 15일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에 영어대학 정학생 회장(이하 영대장)이 단과대 리더십 트레이닝(이하 LT)에서 언어폭력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익명으로 게시됐다. 이를 계기로 영대장의 무책임한 언행과 폭력적 행위에 대한 무감각한 태도를 질타하며 영어대학(이하 영어대) △이민정 EICC학과 학생회장△최주혁 ELLT

학과 학생회장△윤하경 ELLT학과 비상대책위원장△손희영 영미문학 문화학과 학생회장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영대장의 권한 중지 및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캠퍼스 인문관 대강당에서 영어대 비상 학생총회(이하 비상총회)가 열렸다. 비상총회 속 영어대 학생회장단과 영어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 ◆영어대 학생회장단의 공식사과

비상총회는 전병수(영어·영문 16) 현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재 영어대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맡은 손희영(영어·영문 17) 영미문학·문화학과 학생회장이 탄핵소추안 대표 발의자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병수(영어·영문 16) 씨가 임시회장을 맡게 됐다. 이번 비상총회는 지난달 12일 영어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영학대회) 3분의 2 이상의 서명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돼 소집됐다.

### 주요탄핵사유는 아래와 같다.

- (1)적극적 가해자로서 단과대학 구성원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행했다는 것
- (2)단과대 공식행사에서 성희롱 사건 혐의자를 초청하려 했으며 반발을 제지했다는 것
- (3)영어대 학술대회 기획안 부실작성
- (4)책임의식 부재에 따른 공약이행 실패 및 학회장단 비판문에 대한 공식적 사과의 부재다.

사과문 낭독에서 영대장은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았다”며 “1년 동안의 제 모습, 제 잘못을 전부 돌아본 후 진심한 마음으로 영어대 학우 앞에 서서 소탈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공식적인 사과가 늦어진 이유를 언급했다. 덧붙여 영대장은 영어대 LT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사는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영대장은 당시 LT 자리에 있었던 모든 학우에게 사과를 전한 상태이다.

LT 자리에서 한 학우의 다리를 베고 누운 행위도 “상대방이 느끼는 친밀함 정도와 제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간과했다”며 “해당 사건은 아직 피해학우에게 사과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두 번째 제보 피해학우에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과할 것을 약속했다.

사과문 낭독에서 영어대 부학생회장(이하 부영대장)은 영어대 학술제를 학생회로 이관하겠다는 공약 이행에 실패한 것을 인정했다. 또한 영어대 학회장단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영어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영학대회) 단체채팅방에서 학회장들의 질문에 답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린 적은 있으나 사과문 요청에는 답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당시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 ◆탄핵소추안 사유 심의 질의응답, 어떤 논의가 오갔나

영어대 학생회장단의 사과문 낭독 이후 탄핵소추안 사유에 대한 심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수환(영어·ELLT 18) 씨는 “LT자리 욕설과 관련해 피해자와 참가하신 모든 분께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학우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영대장은 “LT자리 욕설과 관련한 당사자 분께는 해당 학과 과 회장에게 부탁해 접촉했다”며 “피해학우 분께서 원하신 방법이 카카오톡 메세지라고 말씀하셔서 그 방법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첫 번째 제보 피해학우에게 사과를 전한 방법을 말했다. 그러나 “성추행 관련 제보가 올라온 당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모든 직무가 중지돼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다”며 사과를 전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영대장이 단과대 공식행사에서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초청하려 했으며 반발을 제지한 것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김영현(영어·ELLT 18) 씨는 사과문에 단과대 성희롱 가해자를 초청하려 한 것에 어떠한 해명이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영대장은 자신이 지난해 영어대 성희롱 가해자를 행사에 적극적으로 초청하려고 시도한 것은 오후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민정(영어·EICC 17) 씨는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 회의 때 두 차례 영대장이 영어대 성희롱 가해자 A씨의 이름을 언급해 제가 혐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지 않음을 고려해 ‘약간 좀’이라고 말했다니 ‘그러면 얘기하지 마’라고 단언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려는 단운위원을 압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수현(영어·ELLT 18) 씨는 “이번 영어대 학생회장단 재선거 때 핵심공약이 반성폭력 문화건설이었다”며 “이는 단과대 학우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행사한 것과 성희롱 가해자를 단과대 공식행사에 초청하려 했던 시도와는 정확하게 모순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영대장은 “지난해 영어대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당선된 만큼 이러한 문화는 바뀌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서 반성폭력 연석회의가 이뤄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차용하려고 했다”고 반성폭력 문화건설을 위해 영어대 학생회장단에서 기울인 노력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약 실천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만든 것을 차용하려고 한 방식은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한 허울뿐인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대장은 “총학이 단과대학학생회보다 상위기구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표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만들어진 반성폭력 내규를 차용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자체적 반성폭력 내규 마련을 미룬 이유를 언급했다. 또한 반성폭력 문화건설 공약이행은 실패임을 인정했다.

## ◆또 다른 논란, 영어대 학술제 기획안

비상총회에서는 학술제 문제가 깊게 있게 논의됐다. 최유빈(영어·EICC 18) 씨는 질의응답 때 학술제와 관련한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영대장은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술제를 학생회로 이관하고자 했으며 9월부터 학장님과 논의와 집행부 회의를 거쳐 기획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학장님이 기획안을 검토한 결과 “기획안 구성이 세부적 시행 계획이 아닌 간단한 아이디어에 그치고 재원의 결여가 있다”며 “이번 해 학술제는 이전 학술제와 동일하게 학과 조교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며 학술제 학생회 이관 실패의 배경을 알렸다.

김예진(영어·영문 17) 영미 시 학회 포이트라(Poetra) 학회장은 학술제와 관련해 △부실한 기획안 작성△학회장단과의 소통 부재△영대장의 태도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영대장은 2주간의 회의를 거쳐 학술제 기획안을 작성했으나 기획안 의도가 절반을 차지하고 학술제 프로그램은 학술제 퀴즈와 피드백 설문지가 전부였다. 학회장단의 영대장 규탄문에 따르면 이번 학술제 기획안은 영대장과 학회장단과의 상의 역시 없었다. 부실한 기획안이라는

지적에 영대장은 “기획안의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 사안이고 자신도 교수님께 사안을 통보받아 당황스럽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영대장은 학술제 공고가 나기 전까지 학회장단에게 어떠한 공지도 전달하지 않았다. 학회장단은 지난해에 비해 늦은 학술제 공고로 혼란을 겪었고 공고가 늦어진 이유를 물었으나 영대장은 “이 모든 것은 본인도 학생님께 통보 받은 사안이다”라고 대답했다. 9월 말에 학술제 예산을 지원하는 영어대 원로 교수님의 별세로 학술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역시 학회장단에게 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한편 10월 21일 김예진(영어·영문 17) 씨는 영대장에게 공개사과문과 대자보를 요청했으나 당시 영대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과를 거절했고 영어대 학회장들은 개인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지난달 20일 영대장단의 공식사과문이 영어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왔으나 학술제 관련해서는 부영대장만의 사과가 있었고 이마저도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였다. 김예진 씨는 “학회장단은 영대장에게 커다란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비라고 있음을 강조했다.

영대장은 부실한 기획안은 “지금까지 학생회 행사에 대한 기획안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순번을 매기는 기획안이 전부였다”며 “학술제 기획안이 얼마나 세부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기획안에 대한 무지를 인정했다. 학술제 자원 문제는 “원래 학생회 예산안에는 학술제가 포함되지 않아 학술제 예산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며 “학회 구성원들에게 재원에 문제가 생겨 학술제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보다는 재원을 준비해 무조건 개최하도록 할 생각이었다”고 공지의 부재를 설명했다. 영대장단의 입장문 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에 지난달 16일 학회장단과 이와 관련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됨으로써 모든 업무가 중지돼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역시 언급했다.

질의응답이 마무리되고 영대장은 “최대한의 사과와 최대한의 뉘우침으로 더 이상 학우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부영대장 역시 “부족한 대표자들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게 해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제33대 영어대 학생회장단의 탄핵은 비상총회에서 정족수를 넘는 181명이 참석했고 △찬성 174명△반대 0명△기권 7명으로 의결이 진행돼 가결됐다. 영어대 학생회에 따르면 비대위장 선출 및 전성회를 위한 절차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96yujin@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외국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 ◆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교육과정은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 전통에 실용성을 더한 국내 최고의 외국어 마스터 과정으로, 대학(원)생,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어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회화과정, 방학특별과정, FLEX 어학시험 대비과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을 설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9년도 상반기 교육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9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2.11. - 06.28.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1.16. - 01.31.
야간과정	10주 야간회화과정	2월, 4월, 8월, 10월	02.11. - 04.18.
주말과정	10주 주말과정	3월, 8월	03.09. - 05.18.
	FLEX 대비과정	3월, 9월	03.16. - 06.29.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3월, 8월	03.16. - 06.22.

※과정별 상세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 참조(http://lltc.hufs.ac.kr)  
※외대생동문 교육비 할인 제공 / 일부 과정에 한함

##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소개

교육특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란어 외
강사진	언어별 전공학과 전임교수, 외국어연수평가원 전임 교강사
절차	상담 → 교육모듈 개발 → 입교 → 교육 진행 → 평가 및 피드백
교육특전	교육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제공(지역학 특강, 주임교수 튜터링) 원어인(한국외대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제공 외국어능력평가 제공 기숙사 시설 이용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어교육 상담 및 문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구분	연락처	이메일
방학특별과정 및 야간과정	02-2173-2515	fltte@hufs.ac.kr
20주 과정 및 주말과정	02-2173-2525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02-2173-2524	edulife@hufs.ac.kr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02-2173-2515, 3518	

# 우리는 왜 화성에 열광하는가?

유경희 교수  
사학과 외래 교수

며칠 전 정확히 2018년 11월 27일 화성에 로봇 탐사선 '인사이트' 호가 성공적으로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세계적 이슈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탐사선이 화성을 방문하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화성의 탐사 역사가 그야말로 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오래됐고, 많은 탐사가 끊임없이 시도됐던 것이 원인 일 수 있습니다.

이토록 화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구의 환경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게 바뀌게 된다면 인류는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의 다른 행성을 찾아야 하는데, 화성이 지구와 꽤 많이 닮아 있어 그 후보로 적합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봐도 화성의 양극에는 지구처럼 얼음 덮개가 덮여 있어서 지구와 비슷합니다. 화성은 지구와 비슷하게 26도 정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처럼 계절이 있고, 지구에 비해 좁지만(최저 섭씨 영하 140도, 최고 섭씨 20도, 평균 섭씨 60도 정도) 지역에 따라 지구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어 그렇게 척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 역시 지구에 비해 매우 희박하지만 대처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며, 화성은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에너지를 그대로 받지만, 이 또한 무엇인가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이 지구에서 6,000만km~7,000만km 정도 근접해 있을 경우 지구인이 그곳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그 어느 천체보다도 쉬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매한 적합성이 다소 불편하기는 해도 화성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몇몇 천문학자들이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 '스키아파렐리'는 1884년 화성에 인공수로가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뒤이어 미국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그에 덧붙여 화성에는 지적 생명체가 있어 수로를 건설했다고 주장해 화성인이 존재할지도 모

른다는 환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상은 라디오와 드라마는 물론 영화로까지 만들어졌고 이와 같은 화성인에 대한 그리움은 천문학자에 의해 시작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공상 과학 영화 속에서 계속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외계인이라면 '화성인' 이고 금성인이나 해왕성인 이 외계인으로 등장한다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오랫동안 화성에 살고 있는 지적 생명체에 대해 환상을 품어왔기 때문이겠죠. 이런 주장들은 20세기에 우주개발 시대를 맞이해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내는 힘이 됐으며, 결국 인류는 화성 표면에 탐사선 착륙을 성공 시키기에 이릅니다. 1965년 '바이킹 1호', '바이킹 2호'가 연달아 착륙에 성공해, 화성 표면의 사진을 보내오고 화성의 표토에서 생명체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공들여 시도한 노력을 무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이킹이 보내온 사진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척박



한 광야였고 생명체의 기미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으며 화성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천문학자들은 바이킹이 보내온 한정된 지역의 사진만으로는 화성의 전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지역마저도 어쩌면 지구 위의 어느 황량한 지역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으려는 시도, 아니면 생명체가 있다는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시도는 다시 시작됐고, 40여 차례의 실패와 성공이 거듭되는 가운데 1997년 '패스파인더'의 성공을 시작으로 화성 탐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전의 탐사선들은 한 지점에 고정돼 그 주변만 살피는 것이 임무였지만 패스파인더는 화성 표면을 자발적으로 움직여 가며 화성 표면을 더 폭넓게 관찰할 수 있어서 화성 탐사의 질을 높였습니다.

패스파인더 성공에 고무된 우주개발팀은 그 뒤를 이어 더 진화된 두 쌍둥이 로버 '스피리트'와 '오퍼튜니티'를 2004년에 각기 다른 화성 표면에 착륙시켰습니다. 이 두 로버는 패스파인더보다 더 넓은 지역을 거침없이 헤집고 다니며 화성의 여러 놀라운 모습들을 지구로 전송해 왔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끊임없이 모래 폭풍이 일어나 붉은 표토가 대기에 퍼지는 동영상을 보고 화성이 붉게 보이는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이것은 또한 지구에서 볼 때 큰 규모의 줄무늬로 나타나기도 해서 그 옛날 퍼시벌 로웰과 스키퍼렐리가 주장했던 인공운하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두 로버가 보내온 사진 중엔 지구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갈을 품은 암석들도 눈에 띄었고, 여러 지층이 쌓여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단층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층 형성이야말로 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이 존재했음을 추론하게 했으며 표토 아래에서는 소금이 발견돼 바다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은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화성의 물은 전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화성에서 생명체는 흔적조차 없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두 로버는 지표 아래 거대한 호수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줘 이제 표면 관측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인류는 더 진화된 로봇 탐사선 '인사이트'를 말 그대로 화성의 내부를 보려고 화성에 보내 착륙에 성공합니다. 이제 인사이트는 다음 단계로 화성의 진면모를 보여 줄 것이니 우리 이 로봇에게 지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주개발팀은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에서 인류가 거주 가능하도록 장비를 설치한다거나 연료를 화성에서 자체 변환시키려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화성 이주 시대로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인간에게 있어 지구만 한 환경이 우주 속에 어디 있겠느냐며 이미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이 지구를 더욱 아껴서 사용해 우리 손으로 다른 행성에 이주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던 한 천문학자의 말이 마음에 더 와 닿습니다.

## 추위 속의 여유로움을 즐기기다

지난 호에서는 추운 겨울에 온기를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여행지를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다가오는 겨울 방학에 답답한 집 안에서 벗어나 잠깐의 여유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여행지는 러시아 연해주에 자리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이다. 블라디보스톡은 '동방을 지배하라'는 뜻의 동해상 최대 항구도시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 불리는 만큼 접근성이 좋아 여행하기 쉽다. 특히 겨울에 블라디보스톡을 찾으면 이색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정식 명칭은 '대시베리아 철도'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까지 장장 9,288km를 약 164시간에 걸쳐 이동한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긴 철도 여행으로, 6박 7일 동안 일곱 번의 시차 변화를 겪게 된다. 기차 안에서 광활하게 펼쳐지는 설경을 감상하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스위스 베른 전경

과 소통하는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는 누리기 힘들다. 블라디보스톡에 간다면 발레 공연을 즐기는 것도 좋다. 마린스키 극장(Marininsky Theater)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유명한 극장이다. 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있는 마린스키 극장의 분관이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마린스키 극장은 2013년 개관했으며 웅장한 유리 건물 외관이 눈에 띈다. 비교적 최근 개관한 만큼 최신 공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로 오페라 공연스발레 공연스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한 달에 20일 이상 다양한 공연을 올라와 여행 일정 중에 쉽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겨울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호두까기 인형>을 추천한다. 두 번째 여행지는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Berne)이다. 알레(Aare)강을 끼고 있는 베른은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도시다. 중세시대부터 몇 세기에 걸쳐 형성된 도시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 지리상 알프스로 가는 관문이면서 스위스의 다른 도시와 연결돼 있어 주변 도시들을 여행하기에도 편리하다. 베른에 방문하게 된다면 뮌스터 대성당(Berner Munster) 방문을 추천한다. 뮌스터 대성당은 베른 대성당이라고도 불리며 스위스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건물로 베른 어디서나 대성당을 볼 수 있다. 이 성당은 1883년 완공돼 약 4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어 스위스 특유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또 344개의 계단을 오르면 대성당 내부에 베른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베른의 또 다른 명물은 마르크트 거리(Markt gasse) 양쪽에 있는 아케이드(arcade)다. 사람으로 이뤄진 아케이드의 길이는 6km로 유럽에서 가장 길다.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쇼핑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아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먹거리 상점이 많아 스위스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작은 극장이 여러 개 있어 현지 공연 문화를 느낄 수도 있다.

안호빈 기자 97anhoybin@hufs.ac.kr

##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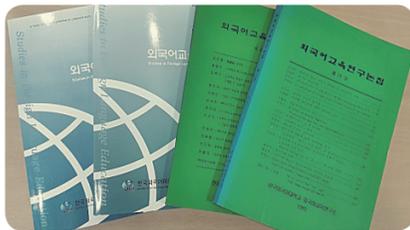
1981년 12월 18일, 어학 교육의 든든한 조력자, 외국어교육연구소가 설립되다.



▲외국어교육연구소 제7차 학술 발표회-외국어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1998.10.30)



▲외국어교육연구소 후원 - 제2회 전국 대학생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시상식(1982.5.29)



▲외국어교육연구소 학술지 - 외국어교육연구



▲외국어교육연구소 국제학술대회(2008.12.5)

세계에서 세 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선 가장 많은 45개의 언어를 교육하고 있는 우리학교는 명실상부 최고의 어학 교육 시스템과 노하우를 갖춘 외국어 전문 교육 기관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밑바탕엔 각 학과들의 각고의 노력과 더불어 어학 교육 이론 및 방법론의 수준 향상과 활성화에 묵묵하게 기여해 온 외국어교육연구소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외국어교육연구소는 '국제화와 세계화 시대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어 교수·학습법의 개발'을 연구 목표로 삼아 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기 위해 1981년 12월 18일 발족했다. 설립 이래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 교수법과 각 언어의 문화 및 언어 정책 등의 연구를 통해 외국어 교육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우리학교만의 자량인 외국어 교육과 지역 학 연구 노하우를 심본 활용해 세계 각국 언어의 내력 사회·문화적 배경스현지어 적응력 방식 등을 분석·기술함으로써 타 연구센터와 비견되는 폭넓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재는 △외국어 교수법 및 외국어 교재 개발스언어 교육 철학 연구스외국어학 연구스응용언어학 연구스외국어 교육을 위한 각종 문화 연구스기타 외국어 교육관련 학계 간 연구 등 크게 여섯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 학술발표회스국내·외 학술회의스교내 외국인 교수와의 세미나 및 외부 교수의 초청 강연회 등 외국어 교육 관련 학술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이론 연구에 집중하는 한편 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소통과 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84년부터는 매년 꾸준히 「외국어교육연구논집」을 발간하며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해까지 총 50호가 넘게 발행된 이 학술지는 2006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됐으며 이름도 「외국어교육연구」로 바꾸고 계속해서 연구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외국어교육연구소는 본연의 기능인 연구 분야 이외에도 편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설립 직후부터 당시 문교부(文敎部)의 후원을 받아 △전국 대학생 외국어(영어·불어·독어)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거나스중등 어학교육 교사 수업 경연대회 후원스최근 '초·중등 영어 학습자를 위한 영어 드라마 캠프'의 교재 개발스특별 프로그램 운영 활동에 이르기까지, 어학 학습을 독려하고 현장에 실용적인 어학 교육 실무 방법론을 보급하는 데 힘써 왔다. 또한 △아랍어 교과서 제작스FLTEX 개발스한국어-네덜란드어 사전 편찬 등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출판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교내 언어연구소(1969년 설립)스외국문학연구소(1995년 설립)스통번역연구소(1997년 설립) 등과 함께 학내의 물론 우리나라 외국어 어학이론 연구를 선도해 온 외국어교육연구소는 앞으로도 정보, 지식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국제 교류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미래 국제 교류의 양상에 대한 예측, 그에 상응하는 인적자원의 과학적 육성을 목표로 어학 교수·학습에 대한 제이론 및 실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 글로벌캠퍼스 총

지난 1년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던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모니(Harmony)는 박종성(통번역·중국어 14) 정후보와 강호균(공과·전자 15) 정후보와 최예림(공과·컴전 16) 부후보로 구성됐다. 두 후보는 지난달 12일부터 표가 진행됐다. 유세 기간 동안 두 후보는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드러냈다.

## ◆기호 1번 '하모니(Harmony)'에 대한 연이은 주의 조치

지난달 15일 기호 1번 '하모니(Harmony)'는 하모니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운동원이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후 기숙사 A동에 출입해 '선거유세장소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에 제3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5장 제30조 7항에 의거해 선거유세장소 위반 사안으로 하모니 선본에 주의조치를 확정 공고했다. 이에 하모니는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이동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선본의 로고와 기조 색이 명백히 드러나는 선거운동복은 시각적 유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같은 달 19일 하모니는 다시 '선거유세장소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하모니의 선본 운동원이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후 유세불가장소인 모현 사거리(교외)에서 교내로 이동한 것이다.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46조 1항 '동일 사항으로 주의조치 2회시 자동경고'에 따라 하모니는 1회 경고를 받았다.

또 하모니의 현수막 중 중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현수막이 발견돼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중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양 선본의 모든 선전물은 중선관위에 사전 검토가 완료된 것이며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교체한 것이 아닌 기후상의 문제나 그 외의 요인으로 검인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됐다'며 '하모니에 징계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양 선본에 선전물 관리에 대한 주의요청과 학우들에게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같음하겠다'고 전했다. 따라서 지난달 19일 중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에 대한 재검인 절차를 밟았다.

제5장 선거운동	
근거	제29조 선거운동장소 1. 선거운동의 성격을 띤 선전물 부착, 유세, 집회는 교내로 한정한다. 2. 기숙사내에서는 가온프리카 제외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중선관위는 제29조 규정을 위반한 선본에게 주의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30조 유세 7. 중선관위는 유세기간 또는 유세장소를 위반한 선본에게 주의조치, 유세일자를 위반한 선본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다.

▲ 지난달 15일과 19일 '하모니' 주의조치

근거	선거시행세칙 제46조 1항 동일 사항으로 주의조치 2회시 자동경고 1회(각기 다른 사항에 대한 주의 조치는 3회당 경고 1회로 상정)
----	---

▲ 지난달 19일 '하모니' 자동경고조치

2018.11.12	오전 9시, 기호 1번 하모니 선본 현수막 검인
	오전 9시 30분, 기호 1번 하모니 선본 현수막 게시
	오후 5시 30분, 기호 2번 리액션 선본 현수막 검인
	오후 6시, 기호 2번 리액션 선본 현수막 게시
2018.11.16	오후 7시, 기호 1번 하모니의 중선관위의 미승인 선전을 발견 -현수막 검인만 없었을 뿐 현수막의 △품질 향상△내용 수정△위치 변경 등의 의도성 발견할 수 없었음
2018.11.19	오후 3시, 중선관위는 검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재검인 절차를 밟음

▲ 기호 1번 하모니의 미승인 현수막 사태 전말

## ◆기호 2번 '리액션(利:Action)'의 '선거운동기간위반' 관련 경고 조치

지난 6월 3일 기호 2번 '리액션(利:Action)'의 한준혁(통번역·중국어 16) 정후보는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총학생회 선거 출마를 알리는 게시물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을 통해 △런닝메이트△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예비 선거운동본부△기조 등을 소개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리액션의 선본에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유세일 자위반'의 사유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리액션 선본은 이와 같은 결과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중선관위의 논의 결과,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과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으로 해석돼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난달 12일 오전 12시, 중선관위는 리액션 선본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선거유세일자위반'에 따라 경고조치를 확정 공고했다.

근거	1.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지난달 12일 '리액션' 경고조치

근거	2.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제5장 선거운동 제30조 (유세) 7항 중선관위는 유세기간 또는 유세장소를 위반한 선본에게 주의조치, 유세일자를 위반한 선본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다.
----	--

▲ 지난달 12일 '리액션' 경고조치

##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 일시 중단 및 재개

기호 1번 하모니 선본의 '유세장소위반'에 따른 주의조치 시행 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논의 하던 과정에서 제보된 사진에 대한 문제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에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석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선거 진행 2일 만에 △이의제기서△문제제기서△진정문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문서들이 오가며 양 선본의 징계에 대한 사안이 급증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과열된 선거 진행을 중재하고, 올바른 선거 인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달 13일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시 중단을 공고했다.

다음 날 14일 중선관위는 양 선본을 소집해 선거 잠정 중단에 대한 설명과 과열 양산을 보인 선거 진행을 중재했다. 이어 각 위치에서 학우들을 위한 공정한 선거 진행 다짐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이의제기서의 해석과 제보 과정에서 염려되는 법률적 해석은 변호인 자문을 통해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선거 진행에 있어 과열을 막기 위한 양 선본의 합의 후 당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선거가 재개됐다.

2018.11.11	기호 2번 리액션 선본의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경고조치 시행
2018.11.12	기호 2번 리액션 선본의 이의제기 접수, 중선본위의 기각. 원안 진행
	기호 1번 하모니 선본의 '유세장소위반'에 따른 주의조치 시행
2018.11.13	기호 1번 하모니 선본의 이의제기 접수
	중선관위의 이의제기 논의, 제보 사진 문제에 대한 해석과 대책 마련 -선거 시행 2일만에 △이의제기서△문제제기서△진정문 포함 10여개의 문서가 오가며 양 선본의 징계 사안 급증
2018.11.14	오후 10시,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잠정 일시 중단 공고
	오후 6시, 중선관위와 양 선본을 소집, 문제에 관해 논의
	기호 1번 하모니 선본의 이의제기 기각, 원안 진행
	오후 10시,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재개 확정

▲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시 중단 및 재개의 전말

# 학생회 선거 운동

러스(이하 글캠)가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출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기호 1번 '하부호보'로 구성됐으며 기호 2번 '리;액션(利;Action)'은 한준혁(통번역·중국어 16) 23일까지 10일간의 유세 기간을 가졌으며 같은 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투



## ◆두 후보를 만나다

### Q1. 이번 선거에서 위와 같은 징계 및 논란을 받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하모니 : 우선 유세장소 이외에서의 운동복 착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하모니 선본의 불찰이며 이러한 주의조치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리액션 선본에서 하모니 선본의 기숙사 내 유세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하모니 선거운동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용한 '몰래카메라'는 글자 그대로 '몰래 사진을 촬영하다'란 사전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적 해석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적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선거 중단 사태는 양쪽 선거본부의 △문제제기△이의제기△진정서 등 10장이 넘는 서류가 오갔던 '선거 과열 현상'으로 인해 중단된 것입니다. 중선관위 역시 이를 인정하고 선거 중단 사유와 과정에 대한 수정된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승인 현수막 관련 논란입니다. 지난달 19일 오후 2시, 위원장과 동행 하에 직인 날인을 했던 현수막의 직인이 지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일 저녁 리액션 선본장△하모니 정·부후보△선본장이 동행해 대형 현수막에 대한 직인을 확인한 결과 해당 현수막의 직인도 지워져 있어 천재지변에 의한 문제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수막 직인 날인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리액션 : (정) 지난 6월 3일, 저는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출마를 명시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단순한 의견 개진인 아닌 △부후보△선본 명△선본 기초 색을 소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돼 중선관위에서 이를 사전선거운동이라 판단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이었습니다. 이런 게시글을 올린 것이 선부른 행동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학우님들께 해당 내용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고 조치를 받은 후, 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난 2주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저희 선본 모두가 발로 뛰며 노력했습니다.

(부) 위 사항에 대해 부후보인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마 의지를 드러낸 글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인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글 작성자인 정후보님만의 잘못이 아닌 저희 둘 모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사유로 징계 조치를 받은 점에 있어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우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Q2. 학우들이 네거티브적 선거라고 판단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모니 : 네거티브적 선거는 이후의 총학생회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기간이 되면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 페이지와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네거티브적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익명 게시판으로 정보를 접하는 경우, 자극적이고 잘못된 정보들을 접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할 수 없어 소문만으로 후보자를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입에 담기도 어

려운 말들로 양측 선본을 비하하는 글들이 난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선본이 총학생회에 출마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익명의 비방을 받을 때면 상처 받기도 합니다. 네거티브적 선거는 지양하고 정전 토론회를 보다 확대해 학우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액션 :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치르며 유권자이신 학우 분들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있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책 중심의 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중심인 '년제로-섬(nonzero-sum)게임'만을 양측 선본이 펼친다고 학우 분들께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선거기간 중 마음의 안정을 위해 에타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이상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선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듣고 있는데 현재 에타에서 양측 선본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선거 운동 기간 초반에 보인 양측 선본 간에 이뤄진 수많은 이의제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측 선본 모두 정책 중심의 홍보가 아닌 상대 후보가 선거시행세부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는지에 집중했고, 징계조치가 나온 것도 모자라 선거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후보자들 간의 경합이 학우 분들께 악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교내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이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함과 동시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 Q3.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모니 : 저희는 총학생회장 선거가 처음입니다. 학교를 바꾸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처음 후보자 등록 때 서명을 받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천 명이 넘는 학우 분들께서 하모니 선본을 응원해주셨습니다. 1,136명의 학우 분들 덕분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 : (정) 학생이 주인인 학교,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두 번째 총학생회장단 선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학우님들께서 잘한 부분에는 박수를 쳐주시고 부족한 부분에는 건전한 비판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

## 지금의 북·미회담의 진상을 알려면 이 책을 읽어라!

한국 문학 사상 최초로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6·25 이야기!**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전쟁을 평터화이(彭德懷)의 관점에서 소설로 써서 우리 민족의 반면교사로 삼고 싶었다. 평터화이! 그는 6·25 때 압록강을 건너온 중공군 총사령관의 이름이다. 6·25는 어차피 맥아더와 평터화이의 한 판 승부였다. 한국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구 양 근 장 편 소설

# 붉은전쟁

평터화이의 6·25

전 3권 | 정가 각 권 14,000원

—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도서출판 **온북스** | 영업부 : 02-2263-0360 | 이메일 : bjs4602@hanmail.net

온북스에서 여러분의 좋은 책을 잘 만들어드립니다.

# 카카오카풀, 앞으로의 향방은?

지난 10월 18일 경기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반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2차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택시기사들이 삭발을 감행했다. 2차 집회에서 택시기사들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카풀은 없어야 한다"며 "하루에 2번으로 제한된 카카오카풀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재 택시기사,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 그리고 정부는 카카오카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카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자

### ◆카카오카풀의 등장 배경

최근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소유경제를 넘어서 공유경제로 성장·발달하고 있다. 기존 소유경제 체제에서 경제시스템은 소유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기초에 두고 있었지만 최근 물건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공유 경제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우버화(Uberlization)'라고도 불린다. 우버화에서 '우버(Uber)'는 미국 카풀 서비스에서 비롯된다. 서로 빌려주고 함께 나누는 의미로 '우버화'와 '공유경제화'는 의미가 상통한다.

이처럼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경제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숙박이나 교통 또한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공유경제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긴 숙박 공유 서비스로는 '에어비앤비(Airbnb)'나 '룸(Room)' 등이 있다. 또한 교통 공유 서비스로는 '럭시(Luxi)', '풀러스(Poolus)' 등이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인수해 '카카오카풀'이라는 시스템을 출시했다.

### ◆카카오카풀이란

'카풀'이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끼리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칭한다. 카풀을 이용하는 승객은 차량 소유주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일반적으로 택시보다 싸고 대중교통보다 비싸다. 우버는 자가용 승차 공유 서비스로 2013년 8월 우리나라에 도입됐지만, 서울시와의 마찰과 택시업계의 반발로 1년 반 만에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카카오카풀은 우버와 다르다. 카카오카풀은 자가용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택시와 다르게 일반인과 일반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지난 10월 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계획을 철폐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카풀업체와 택시업계 간의 입장 차이 조율을 위해 나서고 있으나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 ◆카카오카풀에 대한 문제점

수익성의 절벽에 부딪힌 택시업계는 비교적 저렴하게 운영될 카풀 서비스의 등장이 달갑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들은 생계의 상당 부분 타격받을 수 있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택시 기사들은 하루에 165,000원을 벌고 여가의 80%가량인 135,000원을 사납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사납금의 일부를 다시 기본급으로 기사들에게 지불하지만 물가에 비하면 사실상 매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택시기

사들의 입장이다. 한 택시기사는 "12시간을 일해야 사납금을 겨우 채울 수 있다"며 "사납금을 채운 뒤 버는 돈이 제대로 된 수입인데 근무 강도가 너무 높다"고 토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시 관내 법인 택시 22,603대 중 시간대별로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는 절반 이하인 9,3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법인들 또한 점점 줄어드는 기사들의 수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번 해 2월 기준 법인택시의 면허대수는 88,304대인 반면 운수 종사자는 107,931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택시 1대당 근로자 수가 1.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일 2교대제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낸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시민들은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및 난폭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택시업계에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택시 파업 기사에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서 있거나 난폭하게 운전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택시가 없으면 오히려 여유롭게 출·퇴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택시 파업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택시기사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와 달리 시민들은 카카오카풀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선 준중형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등록된 지 7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들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카카오카풀 관계자들은 택시업계와 지속해서 상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카카오카풀은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택시처럼 기동력있게 여러 승객을 태울 수 없다며 혹시라도 승객을 1명만 태우는 등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운전자 발생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는 기존 업계와 공존이 필요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서비스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면서 서로 공존하며 상생과 지원 방안을 제시해왔기에 택시 업계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택시업계가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일반 카풀이 아닌 '카카오카풀'이다. 기우석 전국민주택시조합 기획국장은 예전 카풀은 사실상 동호회나 회사 쪽에서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용한 것이라 크게 상업성을 띠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카풀은 대기업이 택시업계에 발을 들여 자가용을 상업적으로 영업시키는 행위로 기존의 택시 영업과 유사하게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 ◆정부의 입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은 합법이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시간상으로 정확히 규

정돼 있지 않아 기존 카풀 서비스업체는 이를 이용해 카풀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카풀 서비스업체는 오히려 이를 악용해 24시간 동안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 영업행위를 진행해 불법 논란에 빠지게 됐다.

정부는 카카오카풀이 기존 카풀의 불법 행위들을 따라하지 못하게 운영시간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횡수 또한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운전자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카풀 도입을 포함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정부들은 '선 도입 후 규제'로 카풀을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2년 우버를 도입하고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우버기사가 되기 위해선 영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우버가 도입된 해부터 1년간 신규면허발급을 중단했고 우버를 이용할 때 차량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 비용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사이에 생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등장했다.

또한 중동에선 카림(Careem)이 우버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카림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택시업계와의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카림 대표는 이 충돌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카림 대표는 "택시노조, 연합회 등과 자주 만나며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현재 카림은 중동에서 현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과 택시노조·택시연합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에선 카풀 서비스 그랩(Grab)이 유명하다. 그랩은 말레이시아 현지에 보편화된 카풀 서비스로 말레이시아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도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현지 택시 기사들은 그랩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그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완강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카풀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많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 흡 소 사 이 어 티

우리학교 중앙 자전거 동아리 국토순례반은 여름 방학 중에 동아리 부원들과 우리나라의 국토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동아리이다. 다른 인솔자 없이 학생들로만 구성된 움직임, 모든 코스를 직접 짜서 다녀온다는 매력 있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한번 다녀오면, 힘든 만큼 머릿속에 강한 기억이 박혀 평생 다시는 잊지 못할 경험으로 기억에 남는다. 짜릿한 매력을 가진 국토순례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국토 순례반 34기 부원으로 활동하며 이번 해 1학기 회장으로 35기 순례를 다녀온 강민정(일본·일인문 17)씨를 만났다.

**기자:** 국토순례반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민정:**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친구는 친하게 지내도 고등학교 때 친구만큼 깊은 관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국토순례를 하며 한 달 동안 숙식을 함께한다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순례가 끝난 지금 정말 가족을 얻었습니다.

**기자:** 동아리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민정:** 가장 추가 되는 활동은 여름 방학에 이뤄지는 하계 순례입니다. 한 학기 동안 순례를 준비하



다. 별로 안 바쁠 것 같지만 직접 한 달간의 코스를 짜야 하고,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순례에 다녀와서는 그간의 기록을 모아 책으로 만들고, 사진을 정리합니다. 순례준비 외에도 선배들과의 교류 행사 또한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기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민정:** 국토순례를 하다보면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고르기가 힘들지만, 34기 순례 중 갔던 제주도 바다에서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함덕 해수욕장에서 부원들과 신나게 놀고, 텐트를 치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러 온 선배님이 사오신 치킨을 먹으며 캠프파



어를 했습니다. 힘들게 자전거를 타고 취하는 여유로운 휴식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행복하네요.

**기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민정:** 태풍이 오는 날이었는데, 강원도 산을 넘어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옷도 다 젖은 상태로 산을 오르는데 언덕이 너무 가팔라 자전거 암바퀴가 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한여름이었는데도 너무 추웠습니다. 그렇지만 산에서 땀만 뺀 듯 땀이 마르면서 부원들끼리 돌아가며 몸을 덥히던 것도 지금은 재미있던 추억입니다.

**기자:** 이 기사를 보고 있을 우리학교 학생들에



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민정:** 방학을 투자해 국토순례를 한다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시간 낭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몇 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는데, 이번 여름 방학도 그렇게 보낸다면 아쉬지 않을까요? 지금 한 달이 정말 평생 가는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억뿐만 아니라 국토순례를 하고 돌아와 다시 우리학교 캠퍼스를 보는 순간, 모든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평생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 미세플라스틱, 날날이 파헤쳐 보자

지난달 3일, 굴이나 바지락 같은 조개류뿐만 아니라 생선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150 $\mu$ 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반과 뇌를 포함한 모든 인체 기관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많은 소비자는 불안을 표했다. 미세플라스틱은 무엇이고 어디서 생겨났으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용애 우리학교 환경학과 교수를 찾았다.

\* $\mu$ m(마이크로미터): 미터의 백만 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

김용애 우리학교 화학과 교수

## Q1. 미세플라스틱은 무엇인가요?

미세플라스틱(micro plastic)은 머리카락 크기에 맞먹는 정도인 1 $\mu$ m보다 크고 5mm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말하며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도 불립니다. 정식 이름은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로, 의도적으로 제조됐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 미세화된 합성 고분자화합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를 기준으로 △메가(Mega)△메크로(Macro)△메소(Meso)△마이크로(Micro)△나노(Nano)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번 해 4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이 네이처지오사이언스(Nature Geo Science)에 발표한 논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플라스틱 농도가 각각 2번째·3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 Q2. 미세플라스틱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미세플라스틱은 발생 원인에 따라 1차,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됩니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입자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치약 및 각질 제거용 세안제 등 주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세정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됩니다. 한 제품에 많게는 280만 개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입자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고 깨져 작아진 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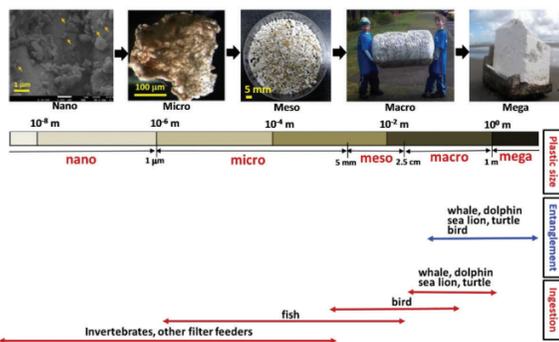


그림 2.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크기에 따른 생물영향. 출처: GESAMP (2015)  
\* 크기가 큰 쓰레기는 얽힘의 위험이 높고 작은 쓰레기일수록 섭취 피해가 큼

▲플라스틱 표

## Q3.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다양한 개체로 전이되고 축적됩니다.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는 입자가 너무 작아 정화 장치에 걸리지 않은 채 바다로 버려집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첨가되는 프탈레이트(Phthalate)△비스페놀 A(BPA)△노니페놀(NP) 등의 유해한 화학물질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에서 나와 해수나 해양생물의 체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6년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즐겨 먹는 170여 종의 해산물에서 마이크로비즈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의 배 속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서로 모여 쓰레기 섬을 이루고 이 플라스틱이 분해된 찌꺼기를 바다생물들이 먹게 돼 이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플라스틱 입자가 크면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크면 동물들의 몸이 플라스틱에 엉키는 현상(Entanglement)이 생깁니다. 플라스틱의 크기가 작으면 동물들이 이를 먹

사람의 체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게 되고 또다시 이 동물들을 먹는 사람들의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달 24일 한겨레 신문에선 사람의 분비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험자 8명의 분비물 샘플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에게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그만큼 미세플라스틱이 곳곳에 퍼졌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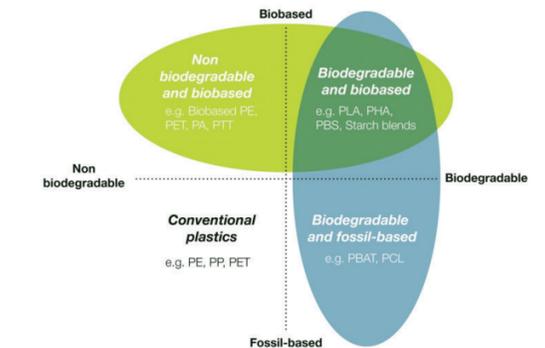
## Q4.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사람의 눈꺼풀에 잔존해 염증을 일으키는 정도의 영향이 나타났지만 미세플라스틱에 들어 있는 성분을 보면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첨가되는 프탈레이트△비스페놀△노니페놀 등은 벤젠 고리(Benzene Ring)가 들어 있는 구조의 화학물질입니다. 벤젠 고리는 육각형을 이루고 중간에 핵이 있는 구조를 띠는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세플라스틱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Q5.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선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스크럽 화장품의 제조를 금지했습니다. 스크럽제는 물리적인 마찰을 통해 묵은 각질세포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크럽제 안에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미세플라스틱, 즉 마이크로비즈입니다. 마이크로비즈는 폴리에틸렌(PE) 혹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만들어지는 0.0004~1.24mm의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입니다.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제 외에도 △삼푸△보디워시△치약△그리고 화장품 등에 사용됩니다. 유럽의 경우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대체재를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분해성(degradable)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토양을 기반으로 하며 생분해성 성질을 띠는 물질을 사용하면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훨씬 빨리 분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6.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종 제품이 자연 분해되는 시간을 분석한 표를 살펴보면 신문지나 사과심은 1달에서 1년이 걸리고 플라스틱은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병, 냅싯줄 등이 이런 플라스틱의 예입니다. 현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고 자연 친화용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들어 있는 스크럽제를 사용하는 대신 집에서 △후스△소금△설탕 등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독일 베를린 소비자들은 '포장지가 없는' 슈퍼마켓인 '오리기날 운페어팩트(Original Unverpackt)'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진열된 상품은 모두 일회용 비닐 등 포장 없이 있습니다. 매장에는 △곡물△향신료△커피 원두 등 농산물은 물론이고 각종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장바구니에서 빈 병이나 빈 통 등을 꺼내 매장에 있는 식료품을 필요한 양만큼 담아 계산합니다. 이 가게 외에도 화장품 매장인 '러시 네이키드숍(Lush naked shop)'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장 역시 이름 그대로 포장 없이 제품을 전시해 놓고 소비자들이 골라서 담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독일 외에도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매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가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자신이 이런 매장을 이용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용의 최소화를 위해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뉴스1에 실린 독일의 오리기날 운페어팩트 사진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 당신들과 함께 쓴 청춘의 한 페이지

“외대학보 수습기자 면접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다 받은 합격 문자에 나도 모르게 감탄이 절로 나왔다. 학보 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상식 시험과 면접을 망친 터라 상심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행운이었다. 기사를 잘 쓸 수 있을지 고민했던 나의 걱정과 달리 수습기자 활동부터 나는 글의 구성부터 작성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즐거웠다. 학보 기자활동이 여느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항상 “힘들지만 재밌다”고 대답한다.

수습기자 활동을 수료하고 내가 소중하게 정성을 들여 쓴 첫 번째 기사는 서울캠퍼스 스마트 도서관 증·개축에 관한 내용이었다. 내가 이번 학기 맡은 취재처가 도서관이고 때마침 도서관이 새로 지어져서 기사를 맡게 됐다. 기자 활동 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 관계자들이 도서관에 갈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었다.

첫 번째 발행 이후 1023호에서 나는 예비군 수업 불이익에 대한 기획 기사를 썼다. 학생의 직접적인 사례를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했지만 내 주변에는 예비군 학생이 없었다. 혼자 짚짚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친한 오빠가 내 고민을 들더니 인터뷰이 구하는 걸 도와줬다. 그 덕에 우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까지 알찬 인터뷰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함을 전한다.

1024호에서 연이어 기획 기사를 맡았다. 서울캠퍼스 정기총회에 대한 기사를 써야 해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야외 취재를 나갔다. 윤아영 기자가 혼자 오랫동안 취재 하면 외롭다며 추운 날씨에 담요를 덮고 오를 때 내 옆자리를 지켜줬다. 윤아영 기자는 귀찮을 만도 한데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정기총회 사진촬영을 해줬다. 이번 호에선 다른 것보다 학보의 가족 같은 정에 무한 감동했다.

세 번이나 기획 면을 맡고 나니 다른 면의 기사도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네 번째 기사는 스물 시스터라는 주제로 사회문화 기사를 썼다. 첫 사회문화 기사를 잘 써낸 나 자신을 칭찬한다!

사회문화 면의 달콤함을 잠시 맛봤지만 나는 다시 기획 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1026호에서 우리학교 학생식당의 현황에 대한 기획 기사를 맡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다. 우선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학생식당이 많아 취재하는 것이 벅했다. 수업을 빼며 취재를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식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자 했는데 문항 설정에 오류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사소한 오류가 큰 실수를 불러왔다는 걸 깨닫고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다.

대망의 종강호로는 인물 면을 맡았다. 우리학교 선배님인 정우영 스포츠 아나운서를 취재했는데, 편집장이 고맙게도 같이 인터뷰를 하러 가지고 해줘 한 학기의 학보 생활 중 가장 행복한 경험을 했다. 처음 하는 인물 인터뷰라 떨었고 취재를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됐다. 하지만 정우영 아나운서께서 평양방면부터 시작해 아이스티, 아이스크림 모나까까지 사주시며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셔서 인터뷰가 잘 끝났다. 그날 나는 ‘나도 미래에 언론계에 진출해 정우영 아나운서와 같은 선배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내가 쓴 기사들을 볼 때 마다 마음속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몽글몽글한 기분이 올라온다. 이 기분에는 내가 취재 전화를 하며 느낀 긴장감과 함께 피드백 해주는 학보 사람들의 따뜻한 눈길과 말들, 좋은 기사만을 생각하면 내 노력이 담겼다. 힘들게 한 학기를 이끈 편집장 동민오빠, 애정 어린내 글씨 봐준 부장 주연·유진, 함께 글을 쓴 차장 산이 오빠·초영 언니·유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기 아영 언니·은지·효빈·소현이까지 당신들과 내 청춘의 한 페이지를 적어나갈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했다. 이 사람들 중 다음 학기부터 학보 생활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 내 마음속 기억에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당신들과 함께여서 힘들었던 올해 2학기를 버틸 수 있었다. 내 학보 첫 학기, 정기자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준 여러분께 감사하며 당신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김지수 기자

## 나의 이니스프리

다들 ‘이니스프리’란 단어를 익히 들어 봤을 것이다. 대부분이 화장품 가게를 떠올릴 뿐,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니스프리’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깨끗하고 자연적인 느낌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니스프리’는 아일랜드 슬라이고(Sligo) 지역 인근의 작은 섬의 이름이다. 아무도 모르는 조그마한 섬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의 시 때문이었다.

‘이니스프리의 호도(The lake isle of innisfree)’는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윌리엄 예이츠(William Yeats)의 대표적인 서정시이다. 이 시는 그가 초창기에 썼던 시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낭만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있다. 당시 그는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거리를 걷던 도중 어릴 적 봤던 호수가 떠올라 시를 쓰게 됐다고 전했다.

이 시에는 그의 고향에 대한 풍경이 세세하게 묘사돼 있다. △꿀벌 우는소리△귀뚜라미 우는소리△방울새 소리△호수가 찰랑이는 소리 등 어릴 적 고향에서 들었던 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독자들에게 자연의 한 가운데에서 있는 느낌을 준다. 이 시는 굉장히 편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또한 이 시에는 색채 대비가 확연히 드러난다. 런던은 우중충한 회색으로 표현한 반면, 이니스프리의 호도는 밝은 분위기의 보라색으로 표현했다. 작가는 이런 대비를 통해 이니스프리, 즉 어린 시절의 밝고 평화로웠던 분위기를 나타내 자신이 고향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전하고 싶어 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각자의 ‘이니스프리’가 있다. 누구든 그리워하는 곳이 있다. 꼭 물리적인 고향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속의 ‘이니스프리’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고향인 이니스프리의 호도에서 보냈다. 그랬기에 화자는 고향을 떠올릴 때마다 그 시절의 자신의 모습과 추억을 회상한다. 작가에게 있어 이니스프리는 순수했던 시절을 회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줘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두 번째는 힘들 때 떠올리는 안식처로 해석할 수 있다. 고향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정의돼 있다. 다시 말해 고향은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편안한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품의 작가처럼 힘들 때마다 고향을 떠올리며 편안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위안을 얻는다.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고향은 작품 속 이니스프리처럼 아름답게 마음속에 기억돼 있을 것이고 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눈을 감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각자의 ‘이니스프리’를 찾아가 보길 바란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 당신은 잘 지내나요?

“후회 없는 삶”, “나 다운 삶”. 영화 <7번째 내가 죽던 날>이 생각하게 하는 주제다.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낸 ‘샘’은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로 죽는다. 그러나 샘은 다시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이 죽던 날을 반복해서 살게 된다.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샘은 자신의 삶을 다시 이어갈 방법을 찾아 나선다.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으므로 그는 파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중 그는 그와 그 친구들이 싫어했던 왕따인 ‘줄리엣’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샘은 충격 받았지만, 자신이 죽던 그 순간을 넘겼다는 안도감에 이내 다시 잠을 청한다. 기대에 차 눈을 떠 보지만 다시 같은 하루다. 좌절한 샘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보기로 한다.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행동을 한다. 하지만 이런 일상은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같은 날을 살면서 회의감을 느낀 샘은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기로 다짐한다.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보이고 친구들과도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뒤 샘은 비로소 반복된 오늘을 끝내기 위해 뭘 해야 할지 깨닫는다. 그것은 바로 왕따를 방관해 상처를 입은 줄리엣의 죽음을 막는 것이다. 샘은 차에 뛰어드는 줄리엣을 구하고 대신 죽어가는 순간 줄리엣에게 “내가 날 구했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선 내일이 있지만 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뿐이었다. 그 오늘은 샘이 꿈 영원이었다. 줄리엣 대신 죽음을 택함으로써 그는 영원한 오늘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줄리엣의 삶을 통해 그가 보낸 의미 있는 하루는 영원히 기억되고 계속될

것이다. “나의 매일은 과연 새로운가?” 영화 말미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샘과 달리 내게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의 순간들은 말쑥히 살아 있음에도 죽어있던 나날이었다. 영화 초반의 샘처럼 주어진 시간에 감사할 줄 몰랐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물살처럼 살아가지만 이렇다 할 의미도 가치도 목표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만큼 쉽게 놓칠 수 있는 존재다. 그동안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느라 얼마나 나 자신을 놓치고 있었는지 다시금 깨닫는다.

모든 것이 새로웠던 20살의 끝자락에서 있다. 쉽 없이 달려온 학창 시절을 지나 대학에 들어왔고 또 다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누구고 뭘 원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타인의 소리는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내 안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놓쳤던 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보고 살피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시나 이 글을 보고 있을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당신을 아느냐고, 다가올 새해에는 모두가 다시 진정한 ‘나’와 마주할 수 있길,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 소통으로 서로의 이해를

최민수 (서양어 · 스페인어 14)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1026호에서는 3년 만에 구성돼, 지난 5월에 출범한 제52대 총학 푸름의 공약 이행 정도를 살핀 후, 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우리 학교 상황에 맞게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학교 프로그램을 알아봤다. 또한 최근에 교수회관 식대가 인상됨에 따라 현재 학생 식당(이하 학식)의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총학 푸름의 공약 이행 정도를 살펴보는 기사는 먼저 너무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는다. 기사를 살펴보면 많은 공약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의견은 있지만 두 명이라 공약 이행 정도를 느끼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성적인 측면에서 공약과 이행 정도를 표와 함께 보여주지 않은 면이 아쉬움이 있다. 기사를 보고 나서 공약의 많은 부분이 이행돼 실행 예정에 있고, 또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총학을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

특수외국어교육 관련 법 기사는 △외국어를 주로 가르치는 우리학교의 특성△관련된 법안 소개△우리학

교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학생들의 의견으로 구성됐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기사였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개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학생들이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면 그때 한 번 더 기사로 다루면 좋겠다.

학식과 관련된 기사는 재정 문제를 다뤘다. 최근 서울캠퍼스 인문관 식당에서 김밥 가격이 500원 인상됐다는 공지를 봤다. 입학한 지 4년 정도가 돼가고 학교 근처의 식당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학식의 가격은 크게 인상된 것이 별로 없었다. 식당 재정 문제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학생 식당이 복지 차원이라는 것과 함께 인테리어 문제와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의 불만 사항도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그 부분에 대한 개인 의견이 나온다면 한 번 더 기사 주제로 다루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총학의 공약 중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았다. 외대학보를 통해 학생들의 여러 의견이 전달이 되고, 학교 측의 현실적인 여건도 알게 되는 상호 소통과 이해의 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 학보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며

권성은 (국제지역 · 한국 18)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지난 1026호에선 김지수 기사가 학생 식당의 현 상황과 관련해 심층보도를 다뤘다. 온라인 게시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뜨거운 소재를 주제로 선정된 것이 인상 깊었다. 이번 기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식당 내부 실정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교 식당 관계자들도 학생들의 의견을 되돌아보고 발전을 꾀할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또한 학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기사의 중립성을 높였다. 그러나 글로벌 캠퍼스에 있던 어문학관 스낵바 코너를 학교 측에서 없앤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면 더 풍부한 내용의 기사가 됐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우리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 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중 3-2번 질문의 답변 항목이 캠퍼스 간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다.

사회면에선 안효빈 기사가 ‘그루밍 성범죄’를 다뤘다. 최근 영화 ‘스포트라이트(2016)’를 접한 후 해당 범죄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고 이를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술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사는 실제 사례를 인용해 기사의 신뢰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보다 확실하게 전했다. 또 그루밍 성

폭력의 의미나 사례 같은 일반적인 정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 또한 인용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했다.

기획 면에선 이은지 기사가 우리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수외국어교육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좋은 의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 하지만 특수외국어 관련 학과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이는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기사에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이은지 기사의 뒷담하는 기자편이 기억에 남는다. 실제로 외대학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지 기자의 수습 생활을 들을 수 있었다. 수습기자 지원을 생각하고 있거나 언론인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글이 공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보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호는 그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보가 교내 대표 언론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나와 같은 독자들과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국·부장 고정칼럼

## 이번 해의 마지막 달, 다음 해를 위해 생각해봐야 할 것

10월 31일 개봉한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 '퀸(Queen)'의 전기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배급사 이십세기폭스코리아에 따르면 보헤미안 랍소디는 누적 관객 수 534만 4895명을 기록하며 역대 음악영화 흥행작 2위에 등극했다. 영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 독창적인 예술가였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당대 영국 언론은 그의 삶을 타고난 예술가의 삶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이민자 출신과 성소수자라는 타이틀은 언론으로 하여금 그의 사생활조차 언론의 모진 괴롭힘의 대상이 되게 했다. 영국의 황색언론은 다이애나 비 사망사건에서도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타블로이드 잡지사들은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의 사생활에 도 넘은 취재열기를 보였다. 1997년 8월 31일 파리에서 파파라치의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다이애나를 태우고 달리던 벤츠가 속력을 높이다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기둥에 충돌했다. 다이애나는 치명상을 입었으나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파파라치들은 죽어가는 그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다이애나 사망한 후 CNN은 잡지사들이 그의 사고 사진을 사겠다고 파파라치들에게 비밀리에 수억 원의 돈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다이애나 사망 4년 뒤인 2003년 아일랜드 기자 베로니카 게린의 전기영화 '베로니카(2003)'가 개봉했다. 1994년 더블린은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나뒹굴 정도로 마약 범죄가 최고조에 달했다. 경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들은 이처럼 마약에 찌든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무감각했다. 베로니카 게린은 마약 범죄의 배후에 있던 더블린 갱단의 조직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1996년 6월 신문 보도가 나간 다음날 그는 더블린 근교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탄 괴한의 총을 맞아 사망한다. 그가 사망한 뒤 아일랜드 시민들의 마약 반대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긴급 국회가 소집돼 마약범죄와 관련된 헌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발족된 '범죄자산관리국(Criminal Assets Bureau)'으로 인해 범죄 용의자들의 재산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을 조사하고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피살사건으로 언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공인의 사생활을 파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한편,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는 언론의 근본적인 역할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재고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 입시를 보며 가르침과 배움의 뜻을 되새기기

지난 11월 24일(토)과 25일(일) 우리학교는 서울 교정에서 수시 논술시험을 치렀다. 1만 8천명의 학생들이 응시를 했고 어느 해보다 결시생이 적었다. 입학처는 양 교정의 각 학과 학생회의 협조와 총학과 학생인재개발처와 협력해 각 과를 홍보하고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현수막을 교정 곳곳에 달았다. 나는 25일 법학관 앞 잔디광장을 걷다가 "나는 입시한다. 고로 입학한다"라는 글귀에 눈길이 끌렸다. 역시 철학과 학생회 명의의 글귀였다. 또 사이버관에서는 입시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학부모들의 자리는 꽉 차 있었다. 여러 재학생들이 단상에서 우리 학교와 학과 자랑을 하기도 하며 우리학교 설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맘때가 되면 과거 입학 시절이 떠오르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감상에 젖곤 한다. 우리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생활을 하던 시절,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강사를 하던 시절, 교수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외대에서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보면서 경건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가르침이 무엇이고 배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가르치미로서의 선생님과 배우미로서 학생이 서로 자란다는 뜻이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가르치는 일은 끝이 없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켜보게 되는 것이다.

2002년 한 학생이 기말시험 이후 찾아왔다. 자기 학점이 이상하다고 선생님께서 학점을 잘못 주신 것 같다고, 요즘이야 학점을 의문을 품고 물어오는 학생이 종종 있지만 당시만 해도 드문 경우다. 이 학생의 의문 내용도 요즘과는 사뭇 다르게, 자기가 '너무 과분한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학생은 여느 학생과 다른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썼다. 대단위 강좌였고, 강의식 교수법의 강의였지만, 나는 당시부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답을 만들어가는 독창성과 자기의 문제를 가진 학생의 답안을 높이 평가한다. 그 학생은 지금 한국립대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철학 고전을 읽히거나 소개하면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빛깔과 냄새가 나는 그렇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끌리게 만드는 자신이 만든 글을 쓰도록 독려한다. 나는 학생의 잠재능력을 싹틔게 하고 싶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들의 구조와 본질적인 의미를 스스로 밝혀가고, 그 과정에서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도 즐기고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하는 글을 쓰게 하고 싶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힘을 기르고, 성숙한 인격체의 시민으로 자라길 바란다.

김원명 (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교수)

## 시작과 끝

글로벌캠퍼스의 선거문제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화제가 됐다. 또한 투표율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들은 그만큼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그 선거들이 다들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선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후보자 사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이 후보자들을 인신 공격한 사건들이 대두됐다. 이러한 선거문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무심코 하는 말, 행동 하나에 누군가는 다칠 수 있다. 즉,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시작과 끝이 함께 존재해야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학생사회에서도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24살 때 내가 외대학보에 들어오며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기자생활을 했던 나는 매 호마다 새롭게 나오는 기사와 함께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 내가 있을 동안 발행된 18번의 신문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편집국장으로서 발행하는 마지막 1027호를 끝으로 임기가 마무리된다. 마지막 신문이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는 기사들로 가득했길 바란다. 95기의 학보생활이 끝났다. 차기 데스크진과 함께 학보 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그 시작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기에 기분 좋게 마무리 하려한다.

정동민 편집장

## 한 학기를 보내며

**정동민:** 여러분의 새로운 학보 응원하겠습니다. 이만 떠날게요.

**홍주연:** 행복했어요. 정말이요. 정말.

**고유진:** 아.. 끝났다..

**조유진:** 자옥이 있다면 이 곳일까

**김초영:** 스트레스 안 받는 목욕이 오는 그날까지..

**나산:** 다음 학기 수들리면 도망갑니다. 감사합니다.

**윤아영:** 앞으로 마감 12번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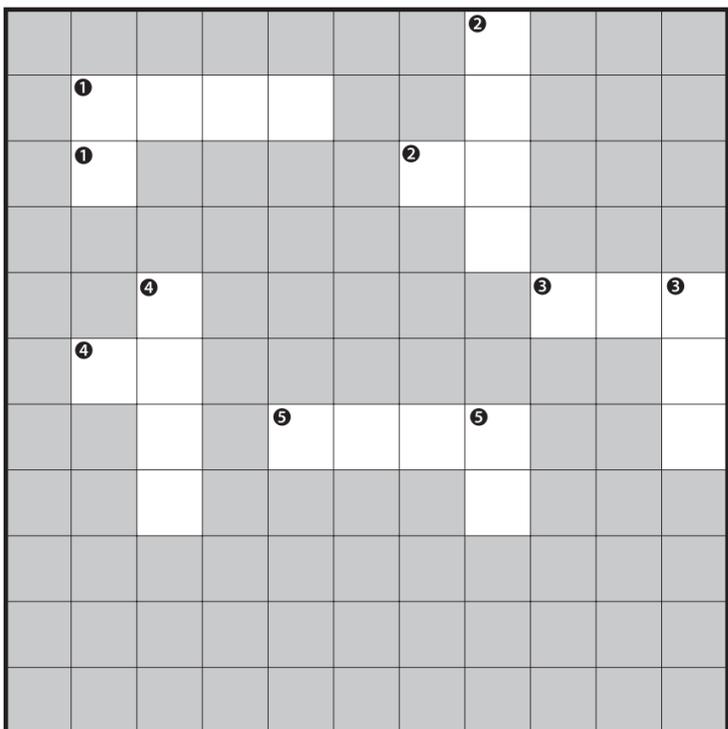
**김지수:** 뒷담하는 기사에는 안힘들다고 썼는데 사실 힘들었음. 내년에는 첫 차 안탈거야(ㅠㅠ)

**안효빈:** 벗어날 수 없는 학보의 굴레...꺼내줘..

**안소현:** 다음학기에는 막차 탄다..꼭..

**이은지:** 그래요 행복했어요 (눈물을 닦으며) 남은 2학기도 행복하길지 하하 학보짱.

## 십자말풀이



### 가로

1. 서울캠퍼스 ○○○○ 선거가 무산되며 서울캠퍼스 ○○○○ 푸름의 임기가 연장됐다. (1면 참조)
2. 지난 10월 ○○노사 단체는 카카오톡이 사옥 앞에서 카풀 반대집회를 열었다. (8면 참조)
3. 이번 인물 면에서는 SBS SPORTS 캐스터 ○○○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12면 참조)
4. 지난해 먹는 생수와 국내산, 외국산 소금을 모두 합쳐 총 6종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8면 참조)
5. 우리학교 페이스북 커뮤니티 페이지 대나무술에서 영어대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게시됐다. (4면 참조)

### 세로

1.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과의 대화가 개최됐다. (3면 참조)
2. 글로벌캠퍼스에서 정수○○ 관련 문제는 상수원이 원인이었다. (1면 참조)
3. 지난달 22일 서울캠퍼스 인문관 대강당에서 ○○○ 비상총회가 열렸다. (7면 참조)
4.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후보인 하모니와 라엑션이 ○○○○ 기간 동안 적절치 못한 선거운동을 펼쳐 논란이 됐다. (7면 참조)
5. 이번 해 2학기 HUFSS Dream(SOS)에서 ○○생을 모집하고 있다. (1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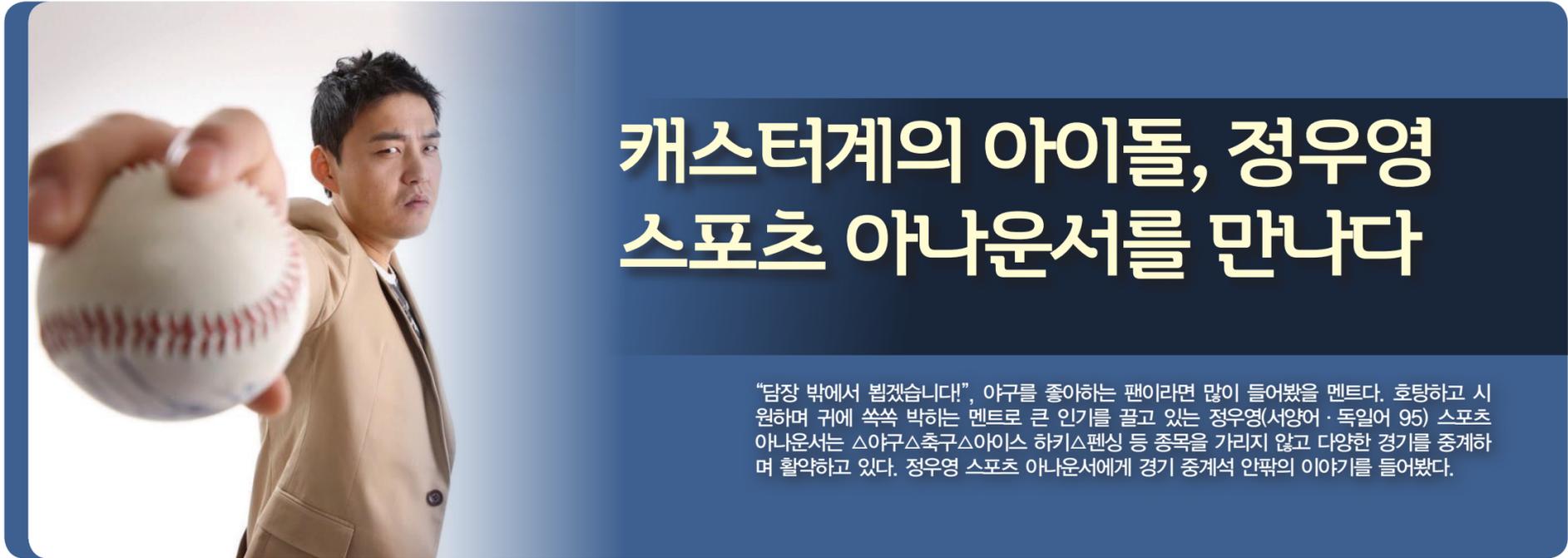
###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spress.net/ 편집장 정동민 010-2267-2192 95won01000@hufs.ac.kr

##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정동민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spress.net**



# 캐스터계의 아이돌, 정우영 스포츠 아나운서를 만나다

“담장 밖에서 뵙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멘트다. 호탕하고 시원하며 귀에 쏙쏙 박히는 멘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우영(서양어·독일어 95) 스포츠 아나운서는 △야구△축구△아이스 하키△펜싱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기를 중계하며 활약하고 있다. 정우영 스포츠 아나운서에게 경기 중계석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Q1.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엄청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느라 대학교 1·2학년 때는 불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대 제대 후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또 저는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학창시절 당시에도 좋아했지만 지금도 우리학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졸업하고도 학교를 가이른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3년 전 와이프랑 함께 학교를 구경했는데 조금 작아서 민망했던 경험이 생각나네요(웃음).

## Q2. 야구 해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여러 스포츠에 많이 노출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프로야구가 개막했어요. 또 한 다양한 스포츠들이 그때 개막이 돼서 그런지 어린 시절 스포츠와 관련된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를 따라 자주 복싱경기를 보러 다녔어요. 어머니께서도 프로야구가 없던 시절부터 고교 야구의 팬이셔서 집에서 야구를 많이 봤어요. 이러한 부모님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제게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네요. 이 덕으로 추후 MBC 스포츠에 입사했을 때도 스포츠 분야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 Q3. 스포츠 아나운서와 공채 아나운서를 뽑는 과정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서 스포츠 아나운서가 됐나요?

아나운서라는 직종이 특수직이라면 특수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시험 기회 자체도 많지 않아요. 28살이 되고 가을에 많은 공채시험을 봤지만 첫해엔 다 떨어졌어요. 29살까지가 제가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해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봤어요. 운 좋게 많은 방송사 중 두 개의 방송사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고 MBC 스포츠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 Q4.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솔직히 제가 어떤 특출한 재능이 있어 스포츠 캐스터가 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스포츠 캐스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소개를 잘해서인 것 같아요. 입사 후에도 저는 자기소개 때문에 아나운서에 합격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면접관이 돼 아나운서 면접 심사를 하면서 느끼지만, 요즘 친구들을 보면 정말 자기소개가 너무 약해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BS 스포츠에 시험을 보러오면 어떤 채널인지 알고 본인이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싶은 이유를 준비해 와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면접에 와서 “저는 사실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지만 합격을 하면 누구보다 좋아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면접은 보여줘야 하는 자리예요. 자기소개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이 회사와 자기가 얼마나 적합한지 보여줘야 해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제대로 준비해 온 한두 명이 합격해요.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지원하든 면접에서 입사 열망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Q4-1. 처음 방송사에 입사할 때 자기소개 덕분에 입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면접 당시 자기소개는 어떻게 했나요?

제가 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방송사의 아나운서 면접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보는데 당시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을 만한 행동을 했죠. 제게 날개가 있다면서 귀를 움직여 카메라를 향해 다가갔어요. 날개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다는 말을 하면서요. 이걸 하는 데 일 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당시 MBC 스포츠의 경영진이 이를 보고 저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Q5. 수많은 경기를 중계 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무엇인가요?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꼽자면 세 경기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얼마 전 박선과 SK 플레이오프 5차전 한동민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쳤던 경기예요. 두 번째는 2015년 프리미어12 결승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했던 경기가 인상이 깊어요. 마지막으로 최후만 선수가 K1에 진출해서 밥 샴과 치렀던 경기까지도 생각이 나네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기억하시는 경기들이 제 기억에도 많이 남아요.

## Q6. 중계방송 도중에 일어난 해프닝 중 기억에 남는 해프닝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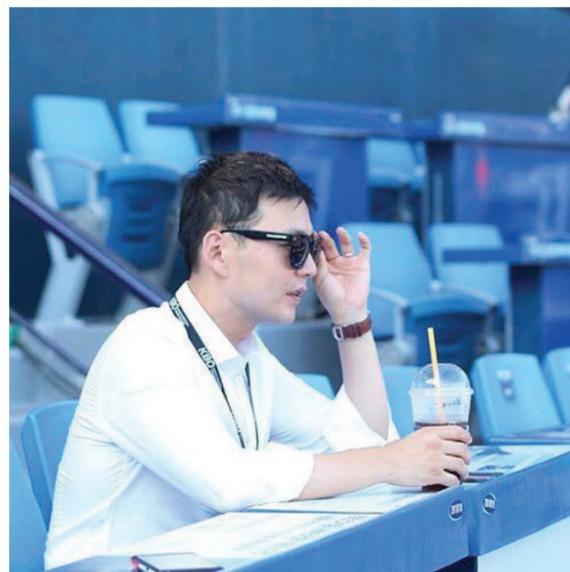
저는 워낙에 해프닝이 많아요. 제가 검색어에 오르게 된 해프닝은 ‘말다툼’과 ‘스페인 족발’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말다툼 사건도 큰 이슈가 됐고 스페인 족발은 추석 연휴기간에 검색어 1위였어요. 두 사건이 묘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두 사건의 피디가 같은 사람이에요. 말다툼 사건 같은 경우는 피디가 약간의 부드러운 입박을 넣으며 옆에서 “재밋다”고 부추기며 일어났던 일이에요. 스페인 족발도 그 피디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피디가 화면 앵글에 착시를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한 이닝이 끝나고 휴식시간에 피디가 제게 “우영아, 스페인 족발 아니? 대전에서 스페인 족발을 판다”고 말하며 “내가 화면에 잡아줄게 봐봐”이라고 바로 광고 후에 스페인 족발을 화면에 담았어요. 저는 그 직전까지 스페인 족발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서 “아, 스페인 족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옆에서 족발의 원산지가 스페인이라고 말해줘서 그

때야 아, 피디한테 낚였다 고 생각했어(웃음). 스페인 족발 사건이 지나고 다행인 것은 이미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말다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다가 스페인 족발 사건 이후 저에 대한 느낌이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 우연이죠(큰 웃음).

## Q7. 컨디션이 좋지 않은 채로 경기 해설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신만의 대처방법이 있나요?

저는 오히려 특이하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더 좋아요. 개인적인 징크스일 수도 있겠는데 컨디션 좋을 때 경기 중계를 하러 들어가면 오히려 더 실수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중계가 더 잘돼요. 플레이오프 5차전 같은 경우도 제가 6시간 동안 중계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화장실도 안 갔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중계방송이 더 잘돼요.



## Q8. 해설할 때 참신하고 재밌는 멘트를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멘트들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그런 멘트가 즉흥적으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항상 준비합니다. 회사에 감사드리고 싶은 점은 정말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에요. 주말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우도 철저해서 사람들이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도 저는 정말 충분히 쉽니다. 올해 휴가를 포함해 쉼 날을 계산 해봤는데 거의 90일이더라고요. 주로 쉬는 날 운동을 하는데 집 근처 남산에 가서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나 어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저는 우리학교 졸업생이고 인문학도로서 자존심이 있어 중계방송을 하면서 남과 달라야겠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요. 그래서 비단야구 중계뿐만 아니라 △축구 중계 △격투기 중계 △농구 중계를 하면서도 이전에 있었던 표현과

는 다르면서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 Q9. <야구장에 출근하는 남자>란 책에서 야구장 주변 맛집 소개를 했는데, 평소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네.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괴로워요. 살이 잘 찌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 오전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PT(Personal Training)를 받아요. 오늘은 인터뷰 오려고 운동을 못 했네요. 평상시에도 야구시즌 중계를 하면서 행복한 점 중 하나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SNS상으로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평양냉면이겠지만 사실 닭가슴살을 포함한 고기류를 다 좋아해요. 야구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제한돼 구단 식당에서 주로 먹는데 그 밥도 맛있어서 좋아요. 주로 중계가 끝난 후 구장 근처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먹기도 해요.

## Q10.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족. 평생의 반려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현명함이 부족하네 그 점을 채울 수 있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며 인생이 달라졌어요. 결혼할 때에도 돈 한 푼 없었지만 현명한 와이프를 만나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인생을 함께할 현명한 상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 Q11.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제 일을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사실 캐스터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현재는 정년퇴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딱 60살이면 자신이 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프로야구 중계에 있어 절정의 기량이 나오는 나이가 딱 그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40살에 SBS 스포츠 프로야구 의 메인인 됐는데 사실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후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저도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제 목소리가 나오는 한 계속 중계방송을 하고 싶어요.

## Q12. 우리학교 학생 중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현재 언론계에 우리학교 선배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후배들은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 회사부터 선배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도 다가오는 후배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도움을 주려고 해요. 언론계에 우리학교 학생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니 언제든지 조언을 구하세요. 운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운을 잡으시길 바라요.